

20120720 - Celebrations for the 50th Day of All True Things and 58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HSA-UWC

Date: 12-07-18



info@tongilgroup.com Copyright© Tongil Group All Right Reserved, Photograph courtesy of Cheonbokgung church

Celebrations for the 50th Day of All True Things and 58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HSA-UWC

- 5.1 by the heavenly calendar (June 20)

On this day, Celebrations for the 50th Day of All True Things and 58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HSA-UWC were held with True Parents, True Children and about 2,000 church members in attendance.





Welcoming Assembly of True Parents' Victorious Return to Korea

- 4.22 by the heavenly calendar at 7 pm (June 11)

This day, the Welcoming Assembly of True Parents' Victorious Return to Korea was held at the Cheong Shim Peace World Center with True Parents in attendance. Participants in the New Tribal Messiah 3,600 Substantial Divine Principle 30 day Workshop for Gi Won Geol and the Liberation of God's Nation participated in this event.



🔴 True Parents' Eternal and Infinite True Love toward True Life and True Lineage

- 4.29 by the heavenly calendar at noon (June 18)

On this day, True Parents went from CheonJeongGung to HanNamDong, their Official Residence, immediately after finishing HoonDokHae in order to see ShinJu Nim, who was born on April 14th, by the heavenly calendar (June 3rd). True Parents' Eternal and Infinite True Love toward True Life and True Lineage is always with us, transcending space and time. Thank you very much.



🔴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s Twitter ▶ lovintp



June 18th; Today's HoonDokHae: God's favorite thing is the culture of love. As the Bible say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se are incredible words. AJu.

June 19th; Today's HoonDokHae: We cannot feel absolute love alone. Love is to give something for someone and to save others with self-sacrifice. That is love. AJu.

June 20th; Today's HoonDokHae: We should know that nothing can be beyond God's sorrow of losing His original children even with all of the world's sorrow combined. Notwithstanding that sorrow, when He comes to see me, we should not forget that He comes only to see myself in exchanging that deep sorrow. We were called just like this. AJu!

🔥 Current Situation of the Donation Drive for Summer Clothing and Used Laptop Computers for African Mission Work

From May 7th to June 18th, Tongil Group's public relations department headed up a collection drive for donations of Summer clothing and used laptop computers to support our mission work in Africa. Many clothing donations were collected and sent to selected areas in Africa by Tongil Group. We sincerely thank all individuals, groups and company officials who attended this event and donated much-needed items.

<June 20: Presentation Ceremony>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and President of the Unificatio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In Jin Moon attended this presentation ceremony.

- Africa Continental Director Hee Sun Ji: Summer Clothing Presentation



-Oceania Continental Director Dong Woo Kim: 12 Used Laptop Computers Presentation

(In January 2012, Africa continental HQ is donated 40 used laptop computers.)



- Asia Continental Director Jeong Shik Yong: Summer Clothing presentation



<Present situation of donation>



1) Laptop computers: total 12

- Tongil Group 6, Sunwon Construction 1, GiYong Song 1, others 4

2) Summer Clothing: total 26 boxes

- Hapcheon Unification church 2 boxes, MyungSun Kim 1 box, Sooyoong HaeUnDae chapter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1 box, Kwacheon Unification church 2 boxes, DongRae chapter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2 boxes, Jacheon Unificaiton Church 4 boxes, World Mission Work Center Director GiMan Lee 2 boxes, Chuncheon chapter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2 boxes, Haman Unification church 1 box, Kimpo chapter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1 box, Seilo 1 box, Busan Unification church 2 boxes, Shinjeong Development Co. 1 box, Sunwon Construction Co. 1 box, Tongil Sports 1 box, JangHeong Unification Church 1 box, West busan chapter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1 box

3) Newly Y-shirts: 710 shirts

- BS Team

🔴 Youth Concert for World Peace and Ideal Family

- June 8 : Tokyo, June 10 : Kyushu



One purpose in holding this event is to identify 2nd generation members with special artistic talent and to encourage them by awarding scholarships.

◇ Photos: Meeting with Japanese 2nd generation members at a Tokyo Youth Concert (In Jin Nim)



◇ Photos: Sermon and Sunday service at the Fukuoka church and the Kyushu Youth Concert



* Segye Times: Universal Ballet Troupe Head HoonSook (Julia) Moon received the ISPA Arts Management Award.



1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서울총회 어워드 시상식에서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오른쪽)이 상패를 받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훈숙 유니버설단장 'ISPA 예술경영상' 수상

박삼구 회장은 예술후원가상

1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서울총회 어워드 시상식에서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이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로부터 '예술경영상'을 받았다. 문 단장은 28년간 발레단을 이끌며 공연예술 국제교류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도 문화재단을 통해 음악

영재를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한 공로로 이날 ISPA로부터 '예술후원가상'을 수상했다. 신진호 기자



40여년을 발레와 함께 살아온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은 발레를 '운명'이라고 말한다. '영원한 지평'로 불리며 발레리나로서 살아온 문 단장은 이제 발레단장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섰다. 다른 무엇보다 그가 소망하는 것은 한국 발레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박해목 기자/mook@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의 언어를 빚어내다

발레리나서 경영자로...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의 꿈과 삶

“저의 삶을 짧게 요약한다면 ‘친양과 발레’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훈숙(49)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 몇 년 전 한 종교행사에서 춤 40년 인생을 돌아보며 한 말이다.

발레는 그에게 신앙과 같은 존재였다.

발레리나가 몸을 관추세우고 고개를 뻗 채 가능한 한 먼 곳을 응시하는 포즈야말로

그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해왔다.

일상의 걸음걸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도

그는 허투루 내걸지 않는다. 무대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럽고 바르다.

발레의 본고장 러시아에서 창작발레 심장을 공연.

큰 호응을 얻고 돌아온 문훈숙 단장을

최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만나 춤 인생에 대해 들었다.

유니버설발레단을 창단, 23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그는 발레리나에서 이제 경영자로 우뚝 섰다.

선화에게 졸업후 모두가 선망하는 英로열발레학교 입학했지만 발표기회 조차 안주는 차별에 자퇴...모나코 왕립발레학교서 진짜 발레에 눈떠
1984년 유니버설발레단 창단하고 보니 발레 불모지 한국의 환경에 당황...첫 창작발레 '심청' 댄 남자 무용수 없어 학교 인쇄소 아저씨까지 동원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발목 부상...시범조차 보여줄 수 없어 날개 잘린 새처럼 절망했지만...지금은 다친 후배들 다독이는 좋은 경험돼
작년엔 한국발레 알리려 신작 발굴보다 해외공연 집중...경영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지만 발레 대중화 꿈에 힘든 줄 몰라



그녀가 걸어온 길

문훈숙(49) 유니버설발레단장은 1984년 발레단의 창단 멤버이자 프리마 발레리나로서 많은 활약을 해왔다. 영국 로열발레학교와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를 졸업하고 스무살 때부터 프로 무용수로 활동해온 문 단장은 발레의 본고장인 러시아 키로프 극장에 선 최초의 동양인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자필은 문 단장의 대표작이다. 문 단장은 유니버설발레단 초창기에 간판 무용수로 활약하다가 1995년 단장에 취임했다. 2001년 무대에서 내려와 발레 단장으로서 경영 일선에 나선 문 단장은 2002년부터 경영에만 전념해 올해로 10년째 경영자의 길을 걸으며 발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인생의 전환점 하나, 유년 시절과 리틀엔젤스클럽

문훈숙 단장의 한국생활은 리틀엔젤스클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살다 10세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때 그는 자신이 왜 한국에 왔는지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였다. 그는 외할머니댁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일주일 뒤 아버지는 어린 문훈숙을 리틀엔젤스클럽에 가입시켰다. 그렇게 그는 한국에 남았고 아버지는 떠났다. 어린 문훈숙은 두려움에 떨며 울고 또 울었다. 친척이러곤 외할머니와 이모,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낯설었지만 곧 적응해야만 했다. 문 단장의 유년 시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말도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리틀엔젤스클럽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해외 공연을 떠났다. 새롭게 우리나라 전통무용도 배워야 했다. 문 단장은 "그때 조금 소극적인 성격이 되기도 했지만 이내 적응하며 밝아졌다"고 말했다.

선화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발레는 그저 재미있는 취미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하고 노래 부르는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그가 발레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그야말로 평범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7세 때 어머니가 동네 슈퍼에 나뭇잎은 발레학교 광고를 보고 일주일째 두 번 레슨을 시킨 것이 그가 발레를 접하게 된 계기였다. 40년이 넘는 그의 발레 인생의 시작이었다.

인생의 전환점 둘, 선화예술학교에서의 인연, 해외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

1976년 선화예술학교에서의 인연은 본격적인 발레에의 입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에드리엔 델라스(Adrienne Dellas) 선생님과 인연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재미로만 했던 발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 단장은 "전까지 발레는 여동생과 취미로 했을 뿐 진심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델라스 선생님을 통해 발레는 본격적인 인생의 목표이자 삶이 됐다."

문 단장은 "델라스 선생님이 스파르타 식으로 지도하셔서 가르치실 때 신발로 때리시기도 하셨지만 정도 많았고 집에 가서 함께 발도 먹고 얼굴 마사지도 해 드렸을 정도로 연습실 밖에선 엄마, 친구처럼 지냈다고 회상했다."

선화예술고를 졸업하고 1979년 모두가 선망하는 영국의 로열발레학교에 입학했지만 저변이 넓지 않았던 한국발레에 대한 차별을 몸소 체험해야만 했다. 열심히 연습했지만 외국인들만 있는 반에 편성돼 1년에 한 번 있는 발표회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없었고, 유학시절 홀로서기는 너무 힘들었다. 결국 편견과 차별, 상처 때문에 로열발레학교를 그만뒀다. 아예 발레를 그만둘 생각도 했다.

그랬던 그가 7, 8년 전 외국에서 발레를 공부하던 한 아이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그는 그 아이의 편지를 보고 예전 발레 유학시절이 떠올랐다고 한다.

영국 유학을 그만두고 1980년 아버지의 권유로 모나코 왕립발레학교에 들어갔다. 모나코는 영국과 달

리 날씨, 분위기도 달랐다. 발레학교 교장이었던 마리 카 베스브라소바 선생님은 일본 문화에도 조예가 깊고 동양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문 단장은 "스트레스 풀려고 점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의자를 가지고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앉혀놓고 발을 쫄다듬으며 치료를 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인생의 전환점 셋, 유니버설발레단 창단과 결혼

새간에서 말하는 '영혼결혼식'에 대해 문 단장은 말을 아끼는 편이다. 지금은 그저 '운명'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합축해버렸지만 문 단장에 유니버설발레단의 창단과 결혼, 두 가지가 동시에 운명처럼 겹치기 다가왔다.

남편 문홍진의 죽음과 영혼결혼식, 유니버설발레단의 창단. 1984년은 그에게 있어 운명적인 한 해다.

그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죠. 영혼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이미 발레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분 남편 문홍진이 사고가 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선화학교를 바탕으로 발레단이 창단됐고 저는 영혼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발레단 활동을 시작했죠. 영혼결혼을 했어도 제가 발레단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면 발레단도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다 운명 같아요."

그는 남편 문홍진 씨와 정혼상태에서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1983년 12월 마주연으로 트럭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 이듬해인 1984년 1월 2일 세상을 떠났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게 해준 건 발레단 창단이었다. 그해 7월 국내 최초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은 그렇게 탄생했다. 문훈숙은 무용수로서 발레단장으로 28년 역사를 함께 시작했다.

문 단장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발레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1986년 선보인 창작 발레 '심청'은 그 첫 시도였다.

"처음엔 남자 무용수들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심지어 남자 연극배우가 발레를 하기도 하고 발레 선

생님이 학교 인쇄소 아저씨를 끌고와 연습을 시키기도 했죠. 심청 아버지 역할을 맡은 김현우 씨도 원래는 연극 전공이예요."

그렇게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창작발레의 역사를 써 갔다. '심청'을 준비하며 주인공 심청을 연기해야 했던 문 단장은 심청이 인당수에 무신하는 장면을 연습하며 크게 놀랐다.

"뱃진 세트 아래 매트릭을 깔아놓고 1, 2층 높이에 서 떨어지러는데 매트릭 옆에 난간도 없고 뱃진 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괜찮다며 문화재단 이사장님(박보희)이 직접 시연했는데 그분이 떨어지며 뼈에 금이 가고 안경도 깨지고 다쳤어요. 결국 매트릭 옆에 난간을 설치했죠."

유니버설발레단의 역사와 함께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심청'은 진화를 거듭했다.

'심청'은 창단 다음해 바로 준비에 착수, 86아시아 게임에 축하공연으로 선보였다. 88올림픽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다 드라마틱한 심청을 선보였다. 세계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전통음악에서 서양 클래식 음악으로 바꿨다. '심청'은 그의 자부심이다.

갑자기 찾아온 발목 부상, 새의 깃털을 자른 듯

11년 전, 문훈숙 단장은 갑작스런 발목 부상으로 오랜 기간 발레를 그만뒀어야만 했다.

"발을 다쳤을 당시에 약간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의사술에 묶여 있다가 풀린 느낌이었어요. 즐겁고 하고 싶은 날이 있듯이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2001년 12월, 자연치유치료를 6개월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아 이듬해 6월 수술을 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다.

수술 이후 회복기간에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6주 동안 반 깁스를 하고 다녔다. 하지만 상처가 굳어지면서 뒤꿈치가 1cm도 올라가지 않았다. 수술은 잘됐는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발레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였다.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한 다음에야 문 단장의 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대에 서진 않더라도 내가 지도할 때만큼은 시범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대에 서는 욕심은 안 부르도 연습실에서 음악을 틀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못하니까 그때의 심정은 정말 새가 날지 못하도록 날개의 깃털을 자른 듯한 심상이었죠. 나의 모든 것을 잊어간 것 같았어요."

1년이 넘는 재활기간이 끝나고 완전히 발꿈치를 올릴 수 있게 된 순간 문 단장은 다시 깃털이 돌아난 느낌이었다. 후배들에게 수술만큼 회복기간도 중요하다는 생생한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발레리나에서 경영자로 제2의 인생

발목 부상으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지만 그제부터 중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경영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재활기간 동안 무용을 쉬다 보니 경영의 경'지도 모르는 그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홍보 등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손이 필요했다.

한동안 단장 역할을 하면서 무용수로 뛰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없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뜻으로 돌린 문 단장은 누구에게도 권유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시의 합들을 시절을 회고했다.

"몇 년 동안 양쪽 모지름 다 쓰고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권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습실에 있던 사무실이 격정되고 사무실에 있으면 공연이 걱정되고, 고민이 많았죠. 그 당시 제 춤이 많이 손해를 받았어요. 춤에만 집중했으면 더 잘 추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부상을 당한 뒤 무대 복귀를 포기했다. 서른아홉의 나이, 마흔 전후로 은퇴하는 것이 정당한 무용수들에게 발레는 직업이 아니라 살아가기에 은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다.

"할 만큼 했고 무대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잘할 때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좀 지쳐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됐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은 아직도 춤과 함께하고 있는 그는 지금도 연습실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한편으론, 발레단 경영은 그에게 아직도 힘든 부분이다.

"경영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의하고 이런 건 경영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자체도 나서고 홍보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냐 보니 지금도 무용수들, 지도교사들이 부러워요."

그런 문 단장이 최근 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국제공연예술협회)가 주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며 주위의 공로로 돌렸지만 전 세계에 한국 발레를 알리고 발레단을 이만큼 이끌어온 것은 그의 공이 크다.

문영규 기자/ymoon@herald.com

* Nepal Media- Nepal Unification Church President Ek Nath Dhakal is appointed as a minister in the Nepal Provisional Government

- The Kathmandu Post

THE KATHMANDU POST

CAPITAL EDITION • PRINTED SIMULTANEOUSLY IN KATHMANDU, BHARATPUR AND NEPALGUNI • STAND PRICE RS 5.00

POWER PLANS
FCC comes aboard power line project

Money

SPORTS
West Indies face stern England test

OP-ED
Blood lines

LIFE & STYLE
Ellen DeGeneres wins top US humour prize

11
6
9

NEPAL'S LARGEST SELLING ENGLISH DAILY

Vol. XX, No. 89 | 12+4 Pages | www.katipost.com

Thu, May 17, 2012 (04:02:2068) Nepal, Sambat 1132

THE KATHMANDU POST | THURSDAY, MAY 17, 2012

NEWS

Bhattarai inducts seven more ministers



Prime Minister Baburam Bhattarai,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Ram Baran Yadav, administering the oath of office and secrecy to the newly appointed ministers in Shital Niwas on Wednesday. POST PHOTO: KIRAN PANDAY

POST REPORT KATHMANDU, MAY 16

PRIME Minister Baburam Bhattarai on Wednesday expanded the Cabinet inducting two ministers from the CPN-UML and five from fringe parties.

In an effort to transform the incumbent government into a national unity one, Bhattarai appointed Ishwor Pokharel of the UML as deputy prime minister and Radha Gyawali as Education minister.

Chandradev Joshi of the CPN (United), Keshav Man Shakya of Nepa Party, Anil Jha from Sanghiya Sadbhawana Party, Parshu

Ram Khapung from Rastriya Prajatantra Party and Ek Nath Dhakal from Nepal Pariwar Dal were appointed ministers.

Bhattarai administered the oath of office and secrecy to the newly appointed ministers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Ram Baran Yadav at the latter's office.

However, portfolios of the new ministers have not yet been specified as parties have been discussing about it. It is learnt that all three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staked their claim to the Energy Ministry.

Newly appointed Minister Jha had participated in a protest that burned effigies of leaders of three major political parties and

Madhesi Morcha on Tuesday evening against the deal on 11-province federal set up. Sanghiya Sadbhawana Party leader Mahesh Yadav said Jha, who is party chairman, joined the government without informing the party.

Earlier Bhattarai had appointed Narayan Kaji Shrestha, Post Bahadur Bogati, Barshaman Pun, Top Bahadur Rayamajhi and Dinanath Sharma as ministers from the Maoists. Similarly, Krishna Prasad Sitaula, Surya Gurung, Bijaya Kumar Gachhadar, Hridayesh Tripathi, Mahendra Yadav, Rajendra Mahato and Raj Kishore Yadav were appointed Cabinet members.

Syria accused of new massacre Page 7 'Nepal should think, act logically' Page 11 Federer blows past Berlog P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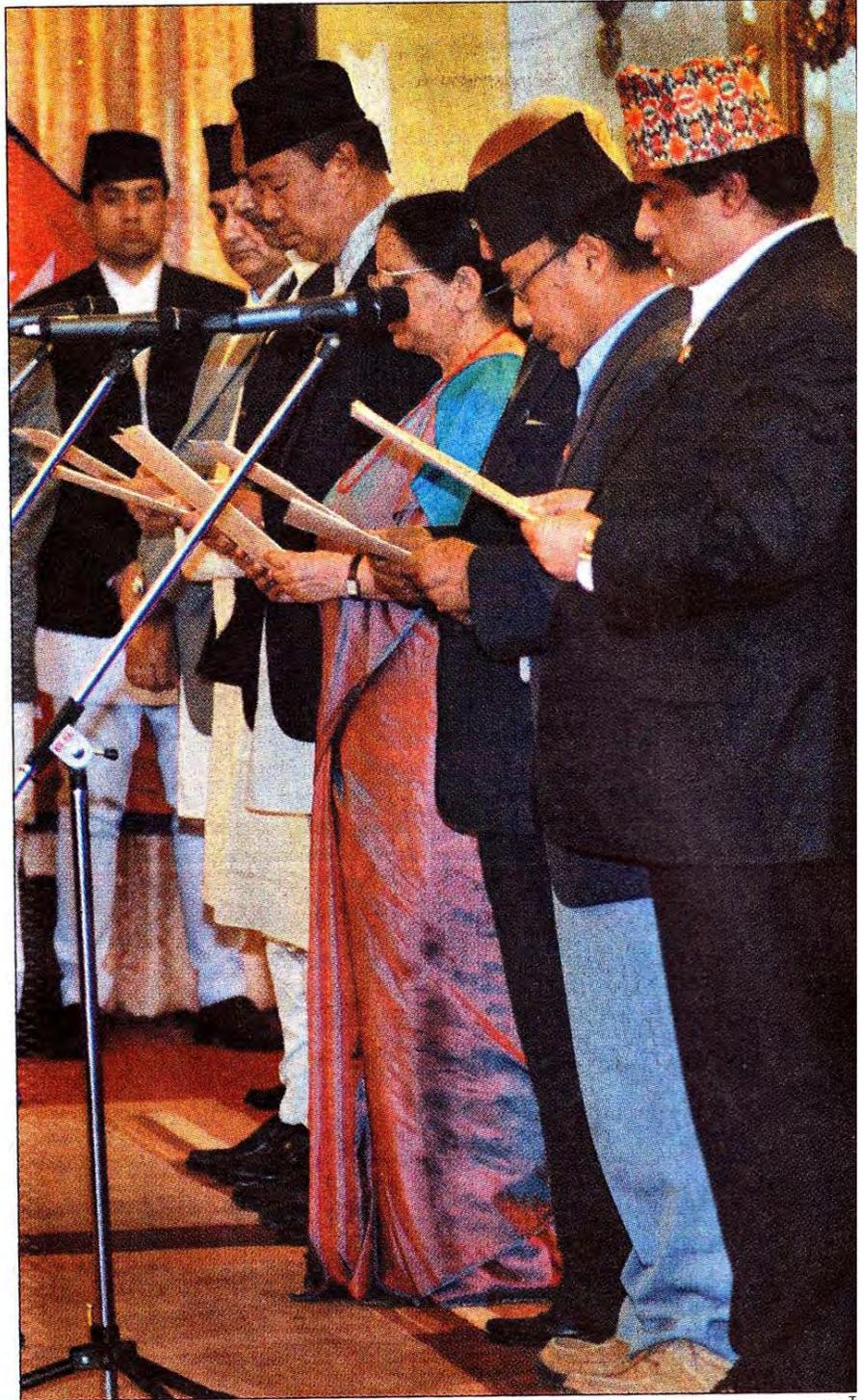
Weather: Mainly fa
Max: 29-31° C Min:
Sunrise 05:14 Sun

The Himalayan

Capital * 16 pages

mandu, Thursday, May 17, 2012, Jestha 4, 2069, Nepal Sambat 1132

es.com om



Newly appointed ministers taking oath of office and secrecy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hital Niwas, in Kathmandu, on Wednesday.

Main contents of report: the Yeosu Expo is different from any other Expo in terms of purpose and preparation. When people visited the Yeosu Expo, The Ocean Hotel was highly recommended due to its noteworthy customer service and informational resources, as well as its all-inclusive water park, golf course and world-class accommodations.

MONTHLY VISUAL MESSAGE MAGAZINE ISSN 0385-258X

KOREA TODAY

2012

6



